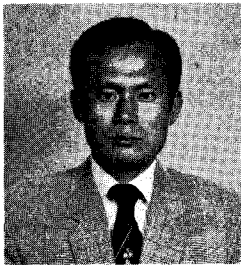


양축가의 대변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홍 경 노
빙그레 파주낙우회

낙농육우회보 는 이
제 우리 낙농인 식구들에게는 소
중하고 친근한 동반자임에 틀림없
을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업 부흥기의 역사
를 체험하면서 축산인 외길 20여
년 지금도 우리 목장 우리 젖소를
아끼고 사랑하며 축산인으로서의
 긍지와 가축개량사로서의 사명감
을 다져가는 한국 낙농육우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실
속있는 회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
던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해를 되

돌려 반성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대변자요
우리들 낙농육우인들의 구심점이
였던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인 연합
회의 이원화와 통합등, 새로개선
된 임원들의 불협화음!

우리 낙농육우협회를 사랑하고
동참하여온 우리 회원들에게 갈등
과 실망을 안겨주기도한 한 해였
다고 아니할 수 없을것이다. 변화
하는 현실속에 지난잘못을 거울삼
아 올바른길로 매진해야 하겠다.

십자가의 고난뒤에 부활의 영광
처럼 우리낙농육우협회도 이제 우
리 양축농가들의 밝은 등대로, 진
실한 목소리로 승화되기를 바란
다.

소값파동의 된서리를 맞아 잔존
하고 있는 그 피해의식이 선량한
농가의 사육심리를 불안케하는 가
운데 날마다 대두되고있는 수입개
방의 압력등 여러가지 감당키어려
운 상처받은 양축농가들의 현실을
생각해볼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사
양관리등 전반에관한 정보와 지혜
의 메신저로써의 역할을 막중할
수 밖에 없다.

지난날의 경험과 우리무역수지

흑자의 엄청난 경제성장등 앞으로
의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할때 낙
농육우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
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축
농가들 또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의 균형있
는 발전을 위해서 축산인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정책에
반영해야하겠지만 우리의 권익과
발전은 우리 스스로 찾아 지켜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도 우리의 앞날을 함부
로 맡길수는 없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체의 양축농가들은 이제
경험과 지혜를 한데모아 하나로
똘똘뭉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
영으로 농축산물 개방화시대에 대
응하여 국제경쟁력 배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낙농육우회보는
양축농가의 대변자요 그리고 한국
낙농의 활성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지며 생산비를 감
소시켜 양축농가의 생산성향상을
기하는데 훌륭한 안내 지침서로써
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이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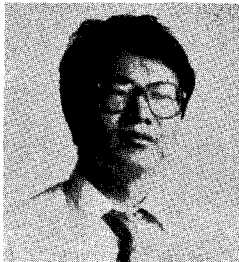
낙농육우회보라는 잡지는 한 두번쯤 읽어볼만한 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식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꼭 읽어야할 유익한 잡지가 되기를

있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지식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기술있는 사람들은 기술로 낙농육우회보를 통하여 하나로 모여 나갈수있는 회원독자의 광장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동참의식으로

낙농육우회보라는 잡지는 한 두번쯤 읽어 볼만한 책이 아니라 이제 는 우리의 의식속에서 항상 존재 하는 꼭 읽어야할 유익한 잡지가 되기를 바라며 밝은 새해를 맞이 하여 전국의 우리 낙농육우회원

여러분들과 오늘도 낙농육우협회의 여러 어려운 살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소망찬 결실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약간은 흥분으로 맞이하고 싶다.



정 부 진

천후제일사료 홍보·판촉담당 과장

선인(先人)들은 세월을 쪼개는 방법의 하나로 연(年)을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이 세월의 매듭을 끈질 이용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매듭을 기화로 변신의 기회나 도약의 발판으로 삼거나 새로움으로 다시 깨어나기도 한다.

1989년, 분명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것이다. 새해에 솟는 해는 지난해 보아온 그해 임이 분명하건만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진다. 따라서 각오 또한 새로워진다. 그동안 한국 낙농육우인의 대변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낙농육우회보에게도 느끼는 감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지난해 누적되 온